

■ 법률 칼럼

출산과 관련된 계약

한국에서는 최근 유전자적 모친이 대리 모 계약으로 제3자를 통해 출산을 할 경우 태어나는 자녀를 친생자로 등록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모자(母子)의 법적인 친족관계는 반드시 '출산'을 통해서만 성립된다는 이유였다. 이와 달리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계약을 통해 출산을 거치지 않고도 친권자로 출생신고서에 등재할 수 있는 제도가 합법화되어 있는데,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약정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예다. 대리모 계약(Surrogacy)은 많은 나라와 주에서 불법과 적법으로 판이하게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대리모 계약의 유효함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시선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상호 협력 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들을 인정해주는 것이 과연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이유가 있느냐는 견해도 있다.

여러 형태의 대리모 (혹은 대리부) 출산의 방법이 알려져 있으며, 대리모 출산 행위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로펌들과 변호사들이 있을 정도로 계약을 통한 출산이 다양한 방법과 환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필자의 경우, 가족법이나 Surrogacy Law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법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 이에 관련된 질문을 종종 받을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리모 계약을 할 경우 민법상 모자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며 법률상의 친권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나아가서 상속권을 비롯한 재산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떠나, 단순히 그 계약관계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볼까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상업적 대리모 행위에 가장 관대하며 우호적인 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대리모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법은 없다. 다만 제법 오래 전에 제정된 통일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과 타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판례들이 설명 지침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제대로 작성된 법률문서를 통해 인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대리모의 출산 이전에 미리 친권을 확보할 수 있

다. 다만 이렇게 체외수정과 제3자 자궁 모를 통해 출산을 할 경우 계약의 조건들이 타당하고 공평한 동시에 연관된 당사자들의 법적 권리의 최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을 하는 양측 모두 각각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 명의 변호사가 양측 모두를 위해 선임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대리모 계약서에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계약서가 체결된 날짜, 체외수정을 위한 난자와 정자의 출처 (익명으로 기부되었을 경우는 예외),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법적 부모로 등재되기를 희망하는 부모(Intended Parents)의 신분 증명 등이다. 대리모 계약의 경우 대부분 법정에서 친권이나 양육권과 관련된 답변을 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전에 반드시 공증되거나 아니면 법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 증인 앞에서 공식화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계약서들과 달리 대리모 계약서의 경우 단순히 문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법적 효능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대리모 계약서는 대리모가 출산을 위한 의료 절차와 내과적 처치에 돌입하기 전에 반드시 체결되어야 한다.

보통 친권 성립을 관할하는 법원은 대리모가 출산을 하게 되는 지역, 대리모가 거주하는 지역, Intended Parents가 거주하는 지역, 혹은 대리모 계약서가 체결된 지역이나 대리모 계약서를 통해 당사자들이 사전에 약정하여 지목한 지역에 속해 있어야 한다. 일단 대리모 계약서가 법원의 행정 처리를 위한 신청서와 함께 접수되면 해당 법원의 특별한 승인 없이는 계약 당사자와 그들의 담당 변호사들, 지역 정부의 사회복지 관련 부서 직원 외의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절대 비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지연 변호사
(Jeeny J. Lee, Esq.)
JL Bridge Legal Consulting 대표변호사
info@jbridge.com
www.jbridge.com
(949) 535-5275



■ 건강 칼럼

치매를 부르는 생활 (1)

치매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말로 '정신이 없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를 '정신 지체'라고 부르는 반면,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으로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인지 기능이란 기억력, 언어 능력, 시공간 파악 능력,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력 등 다양한 지적 능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각 인지 기능은 특정 뇌 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치매는 인종과 국적을 불문하고 발병하지만, 나라마다 발병하는 치매의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국의 경우, 대뇌 피질세포의 점진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알츠하이머병이 70%로 가장 흔하고,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에 의해 치매가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가 17%로 두 종류의 치매가 전체 치매의 약 90%에 해당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뇌질환으로 예전에는 원인이 불명확하다 여겨졌지만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평상시 뇌운동을 통해 뇌세포를 단련시키면 대뇌 피질의 변화를 초래하는 단백질의 축적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한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치매보다 보행장애, 연하 곤란, 사지 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이 많고,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성인병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생활상의 주의가 더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치매는 당연히 나이가 들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잠시 우리 현대인의 하루를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업무를 마친 후, 교통체증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허겁지겁 과거나 탄산수로 허기를 채웁니다.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미루다 TV를 켭니다.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슬슬 배가 고파지자 라면을 끓입니다. 먹고 나면 바로 후회가 되어 늦게까지 자지 않고 TV를 보거나 쓸데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늦은 밤, 잠을 청해보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고, 자더라도 선잠을 자다가 새벽녘에야 깊은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면 머리는 아직 무겁고 오늘 할

일에 마음이 무거워져 담배부터 입에 뭍니다. 어제 저녁 늦게 라면을 먹었으니 오늘 아침식은 영 먹고 싶지 않습니다. 빈속에 커피와 함께 다시 교통체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B씨는 7시가 넘어서야 업무가 끝났지만, 새로 생긴 거러처와 저녁식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차를 타고 회사를 나섭니다. 고기와 함께 한두 잔 시작한 술이 어느덧 한병, 두병이 되고 노래방에 들렀다가, 치맥으로 입가 심하고 나니 벌써 밤 1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침대에 말 그대로 뻗어버립니다. 한두 시간 잤을까요? 목이 타고 소변이 마려워 한밤중에 깨고는 잠이 오지 않아 한두 시간 있다가 새벽녘에 잠시 눈을 붙입니다. 아침엔 숙취로 따뜻한 국물이라도 마시고 싶지만 부랴부랴 옷을 입고 나가기 바쁩니다. 가다가 도넛 가게에 들러 설탕이 잔뜩 발린 도넛을 크게 한입 먹습니다.

C씨는 막내아들이 동부부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생활에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로 북적이던 큰이층집이 이제는 텅 비어서 남편과 C씨만 같이 생활합니다. 아이들 뒷바라지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무척 그리웠는데 매일 혼자 지내게 되니 우울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북적거리던 식당에서 남편과 텅그러니 식사를 하는 것도 재미가 없어 마트에서 사온 밑반찬이나 국으로 대충 때우기가 일쑤입니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의사선생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우울증이라며 약을 줍니다. 약을 복용하고는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져 깨어 있는 시간에는 부족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바쁘게 움직이게 하고 무기력하게 합니까? 이대로 가도 우리 괜찮은 것일까요?

다음 연재에 왜 이런 우리의 생활방식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고 치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r. Sung Hye Yi
President & COO
Anti-Fragility Health
www.anti-fragilityhealth.com
TEL (714) 864-3730
1020 S. Anaheim Blvd., #101
Anaheim, CA 92805



• 왕초보 전문 •
영어방황 끝!
소름끼치게 쉬운 지도방법으로 영어회화 끝장내드립니다!
미국에서 20년 영어지도하면서 터득한 영어성공비법 무료공개!
* 1,2 회 무료상담 및 지도 후 결정바람
대상 - 해도해도 영어실력이 늘지 않는 분
- 영어가 갈수록 더 안되는 분
- 일상영어가 빨리 나오길 원하는 분
- 기본원리를 깨달아 스스로 하고 싶은 분
- 미국인 선생님과 대화 가능
☆ 각종 회화교재와 CD, DVD 완비 ☆
714.797.4028 1031 Rosecrans Ave. #211, Fullerton, CA 92833
213.284.4725 15435 S. Western Ave., Gardena, CA 90249

엔틱 시골농장
일일관광 추천장소
• 단체손님 좋은 모임장소제공 및 특별 서비스제공
• 바베큐 시설 완비
• 교회 바자회 물품 특별상당
• 정성드려 농사지은 올계닉 무청 시레기, 상추 깻잎, 돛나물, 마늘 / 각종 장류, 청국장
• 정말 좋은 건강식품 부추뿌리 분양 (집에서 쉽게 키울수있음)
11528 Monte Vista Ave. Chino, CA 91710
☎ 문의/예약 323 841 5687